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125
APR 24 2020

발간년월 2020년 4월 24일 (통권 제125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총괄 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소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 머스크, 러시아 상트에서 최대 규모 CO2 냉장창고 운영
- 러시아, 노바텍의 LNG 터미널 건설 예산계획 변경 승인
- 아제르바이잔, 바쿠~투르크멘바시 연결하는 피더선 운영 시작
- 조지아, 코로나19로 인한 식료품의 수입 지원대책 발표

전문가 칼럼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러시아 시장에 적극 대응하자

주요 통계

- 2019년 12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
- 2019년 12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 2019년 12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주요 동향



머스크, 러시아 상트에서 최대 규모의 CO² 냉장창고 운영

■ 머스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러시아 최대 규모의 냉장창고 운영 시작^{a)}

- 이 창고는 지난해 6월 착공에 들어간 지 9개월 만에 완성되었는데, 이산화탄소 냉각방식을 사용하는 냉장시설로는 러시아 최대 규모임
- 농산물을 영하 25℃ 상태에서 보관하기 위한 별도의 보관고를 갖추고 있으며, 3개의 저장실과 5만 톤의 농산물을 보관할 수 있음
- 이곳에는 아르헨티나에서 선적된 컨테이너 60개 분량의 농산물이 처음으로 입고되었는데, 앞으로 아르헨티나 농산물 외에도 남아공 포도와 사과 등이 3개의 보관고에서 처리 예정임

■ 코로나19로 식료품 소비 43% 늘어 콜드체인 물류 기술도 빠르게 향상 중^{b)}

- 러시아 설문결과에 따르면,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응답자의 56%가 집에서 요리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고 응답했으며, 5명 중 1명꼴로 러시아 국민 43%가 식료품 소비 지출이 증가했다고 밝힘
- 신선식품은 유통기한이 짧고 종류가 많아 기한 경과 및 부패 등으로 인한 제품의 손상률이 커 창고 관리의 시스템화 및 데이터화, 새로운 관리 모델 적용을 통해 손상률을 낮추는 것이 큰 관건으로 작용함
- 앞으로 머스크는 콜드체인 시스템을 확대하는 방안의 하나로 식물위생, 수의검역, 보세 냉장 보관, 현장 통관 등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인데, 러시아에서 효율적인 창고관리 기술과 모델 도입을 통한 개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그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설치된 머스크 냉장창고



이슬기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sglee84@kmi.re.kr/051-797-4768)

참고자료

- a) http://r744.com/articles/9489/maersk_opens_largest_co2_cold_storage_facility_in_russia(2020. 4.22. 검색)
- b) <https://tass.ru/ekonomika/8311019>(2020.4.23. 검색)

러시아, 노바텍의 LNG 터미널 건설 예산계획 변경 승인

■ 러시아 정부는 노바텍의 ‘우트렌니예’ LNG터미널의 재정 계획 변경안을 승인했음

- 러시아 기단반도(Gydan Peninsula) 북부에 ‘우트렌니예(Utrenneye)’ LNG 터미널이 건설될 예정이며, 2019년 6월 초기 계획이 승인되어 현재 건설이 진행 중임
- 4월 15일,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 가스 기업 노바텍(Novatek)의 ‘우트렌니예’ LNG 터미널 재정 계획 변경안을 승인하면서, 해당 터미널에 대한 투자액은 기존 1,442억 루블에서 14% 증가했으며, 기간은 2년 연장되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수행될 예정임
- 터미널에 대한 총 투자액은 1,641억 루블, 이 중 약 1,032억 루블은 러시아 정부가, 약 609억 루블은 노바텍이 충당하기로 결정되었음

■ 우트렌니예 터미널은 북극 LNG-2 프로젝트를 위해 건설되는데 기존 규모 계획보다 2배 확대됨

- 우트렌니예 터미널 프로젝트는 총 7단계로 구성되며, 초기 3단계에서 국영 인프라 사업의 하나로 정박 및 항만 시설이 건설될 예정임. 이후 4단계에서 민간 기업이 항만 인프라를 신설하고 기존 시설을 재건하며, 프랑스 석유기업 토탈사와 중국 기업 CNODC사와 CNOOC사가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함
- 해당 터미널은 주로 북극 LNG-2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2026년 이후에 가동될 예정인 북극 LNG-1 프로젝트의 LNG 수송도 포함함
- 터미널의 수송 규모는 2,160만 톤에서 그 2배인 4,320만 톤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중 3950만 톤은 LNG, 360만 톤은 콘덴세이트 수송을 위해 사용될 예정임
- 해당 LNG 터미널은 무르만스크와 캄차트카에 있는 두 개의 예비 환적항을 거점으로, 러시아에서 북극 항로를 가로질러 유럽·아시아 시장으로 물류 운송이 가능하도록 이끄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그림. 러시아 우트렌니에 LNG 터미널 프로젝트



자료: <https://thebarentsobserver.com/>

김현진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yunjink24@gmail.com)

참고자료

- <https://1prime.ru/energy/20200416/831272463.html> (2020년 4월 20일 검색)
- http://www.angi.ru/news/2880263-Правительство-утвердило-изменение-в-финансировании-СПГ-терминала-Утены-/?_utl_t=tm (2020년 4월 20일 검색)
- <https://thebarentsobserver.com/en/industry-and-energy/2020/04/new-arctic-terminal-will-be-built-twice-bigger-planned> (2020년 4월 20일 검색)

아제르바이잔, 바쿠~투르크멘바시 연결하는 피더선 운영 시작

■ 아제르바이잔 국영철도기업(Azerbaijan Railways)이 터키와 중앙아시아 간 물류서비스에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피더선* 운영^{a)}

- 발칸(Balkan)이라고 불리는 피더선은 바쿠(Baku) 국제무역항에서 투르크멘바시(Turkmenbashi) 국제무역항으로 연결할 계획이며, 이 연결은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 체결된 협력 협정에 따라 이루어짐
- 120피트 컨테이너 선박은 아제르바이잔 철도의 자회사인 ADY 컨테이너가 운영하고 터키에서 적재된 화물을 운송할 예정
-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및 아프카니스탄의 화물 운송을 위해 건조된 선박은 화물의 양에 따라 일주일에 1~2회 운행할 계획

* 피더(feeder)선은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기항하는 항만과 인근 중소형 항만 간에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중소형 선박

■ 이번 운송에는 BTK(Baku-Tbilisi-Kars) 연결 철도가 핵심 역할을 수행^{a)}

- BTK 철도는 아제르바이잔의 바쿠(Baku),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Tbilisi), 터키의 카르스(Kars)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명칭으로 세 지역을 연결하는 846km 길이의 철도임. 2007년 11월에 착공하여 10년의 공사 끝에 2017년 10월 완공되었음
- 이 철도는 세 국가 외에도 아시아, 유럽, 북아프리카 등 60개 국가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으며 해상운송보다 2배 빠르고, 항공 운송 비용의 절반에 해당된다는 장점이 있음. 2019년 10월 기준 BTK로 2만 7000톤의 화물이 운송되었지만, 2020년에는 300~500만 톤, 2022년에는 600~800만 톤의 화물이 운송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터키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폐쇄된 육상 무역의 대안으로 BTK 철도 운송을 중앙아시아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면서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이 터키 운송업체들에게 매우 중요한 운송 경로가 되었음을 강조했다

■ 아제르바이잔, BTK 철도를 통해 유라시아 교통물류의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한 경제·산업 다변화 전략 추진^{b)}

- 아제르바이잔은 ‘서부 유라시아지역의 교통물류 허브로의 도약’을 정부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바쿠 신항 개발, BTK 철도 건설 등으로 중국의 일대일로와의 연계를 통한 유라시아 교통물류회랑과 러시아-이란을 연결하는 남북 물류 회랑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이 뿐만 아니라 최근 아제르바이잔 철도기업과 일본 국토교통성 및 일본 물류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면서 일본-러시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터키-유럽 경로를 통한 운송 계획이 현재 논의되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의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 계획은 우리나라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으며, '9개의 다리'를 구체화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의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 지식과 경험을 아제르바이잔과 협력을 강화하는 요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그림. BTK 철도 노선



자료: <https://thegeeye.com/trains-start-operating-baku-tbilisi-kars-railway-2-weeks/>

이슬기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sglee84@kmi.re.kr/051-797-4768)

참고자료

- <https://caspiannews.com/news-detail/azerbaijan-launches-feeder-ship-service-for-cargo-transportation-2020-4-14-30/>(2020.4.22. 검색)
- <https://menafn.com/1100058108/Azerbaijan-expanding-co-op-in-trans-border-cargo-transportation>(2020.4.22. 검색)

조지아, 코로나19로 인한 식료품의 수입 지원대책 발표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조지아의 올 1분기 물동량은 2.7% 하락했으며, 이 중 3월 전체 물동량은 전년 대비 16%, 수출입은 각각 22%와 13%로 감소했음

- 2020년 1/4분기 수출규모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5.9%가 감소한 7억 7820만 달러(한화 약원), 수입규모는 작년 동기간 대비 1.4%가 감소한 19억 9580만 달러(한화 약원)의 수치를 보였음
- 수출입 물동량 이외에도, 코로나19 사태는 관광호텔업, 대형마트, 요식업, 휴양 및 오락산업, 교통 등 조지아 경제에 중요한 분야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고 있으며, 점차 산업 분야에서의 위기는 부동산, 금융, 건설, 생산 및 교육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음
- 조지아에서 영업 중인 투자회사 갈트 앤 타가트(Galt&Taggart) 사는 판데믹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위축으로, 상황에 따라 최소 2억 달러에서 10억 달러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자료를 발표한 바 있음

표. 2020년 1/4분기 조지아 수출입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액수	증감률
수출	778.2	-5.9
수입	1995.8	-1.4
총계	2773.9	-2.7

자료: <https://geostat.ge>

■ 세계적인 판데믹으로 인한 물동량 감소는 특히 식량안보에 영향을 주고, 조지아 내 빵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며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었음

- 이에 따라 레반 다비타시빌리(Levan Davitashvili) 농업부 장관은 9개 기본 식품인 쌀, 면류, 밀가루, 식용유, 분유, 설탕, 밀, 메밀, 콩을 취급하는 수입업자에 대해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보조금 지급을 발표하여, 빵 가격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진정시키고자 하였음
- 이후 4월 18일 조지아 정부는 밀과 밀가루를 취급하는 식품수입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였으며, 그 규모는 총 520만 라리(한화 약 20억 1,100만 원)로 책정

되었음. 그 결과 2000톤~4만 톤의 밀 또는 밀가루를 수입하는 업자들은 1톤 당 40달러의 보조금을 받게 되었음

- 보조금 수령을 원하는 사업자들은 신청 및 동의서를 작성하게 되며, 동의서 작성 이후 3개월 동안 50kg 포대 1개 당 51 라리(한화 약 19,800원) 이상 판매할 수 없음. 이를 위반할 시 보조금 환수와 5만 라리(한화 약 38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됨

조용성 현지리포터,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7 981-198-65-06, mirinae2929@gmail.com)

참고자료

- a) <https://sputnik-georgia.ru/economy/20200418/248277564/Tseny-na-khleb-ne-povyatsya--vlasti-Gruzii-pomogut-importeram-pshenitsy.html> (2020.4.22. 검색)
- b) <https://sputnik-georgia.ru/society/20200322/248037940/Tsena-na-khleb-ne-velichitsya---glava-Minselkhoza-Gruzii-uspokoil-grazhdan.html> (2020.4.22. 검색)
- c) <https://sputnik-georgia.ru/economy/20200414/248233552/Vneshnetorgovyy-оборот-Gruzii-upal-s-naala-goda-na-27.html> (2020.4.22. 검색)



포스트 코로나 시대, 러시아 시장에 적극 대응하자

■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러시아 경제의 불확실성이 대러제재 이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음

- 당초 러시아 정부는 4월 말 코로나 사태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전국민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지만, 확진자가 매일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직 공식발표 전이지만 국민들은 5월까지 자가격리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문제는 상황이 거듭될수록 국가경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점임

- 러시아 중앙은행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전 국가적 휴무 시행 등의 방역조치가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 또한 한 달간의 전 국가적 격리 조치는 1.5~2%의 성장률 감소를 감수해야 하며, 국민 자가격리 조치 기간에 따라 향후 러시아 경제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발표했음

■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 경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함

- 러시아 경제는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코로나19 사태에 상대적으로 예민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바로 국제유가임
- 석유전쟁으로 국제유가는 바닥을 맴돌고, 루블화 가치 또한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주식시장 또한 요동치고 있음

■ 러시아국립평가원은 코로나 쇼크로 국가적 차원의 경제손실액을 약 17조 9000억 루블 (약 18조원) 규모를 예상함

- 서비스 산업이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고, 다음으로 식료품 생산, 농수산업 등으로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분석함
- 러시아 항공청은 항공업계의 손실이 천억 루블(약 1조 6천억 원) 규모라고 발표했으며, 이는 사상 최대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드러남

- 외국인 입국금지, 전 국민 자가격리 조치로 전체 공항의 승객 수가 90% 가량 감소한데 따른 결과이며 업계는 경영 정상화까지는 약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함

■ 러시아 금융시장 또한 경제악화 위기에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가운데,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임

- 러시아 신용평가사 아크라(ACRA)는 러시아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위기를 뜻하는 2.5 지점을 넘어 3.12에 도달했다고 발표함
- 이처럼 금융 스트레스 지수에 악영향을 미친 이유로 코로나19 및 유가하락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하면서도 금융 스트레스지수가 올랐다고 금융위기 상황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위기가 실현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힘

■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약 4년 만에 최저 수준에서 횡보하며 좀처럼 방향성을 잡지 못하며 금융시장에 연일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음

- 이는 코로나19 사태와 주요 산유국 간 원유 감산에 따른 논쟁이 루블화 가치 하락을 더욱 부채질 하는 상황임
- 이에 외환시장에서 러시아 루블화의 미국 달러 대비 환율은 73~78루블 범위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2016년 상황으로 회귀된 상황임
- 한편 러시아 중앙은행은 상황을 주시하며 대책을 내놓겠다고 최대의 금융시장 동요를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의지는 보이고 있지만 불길히 쉽게 잡히지는 않는 분위기임

■ 실업자 수는 최대 1,5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중소기업 몰도산과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경고함

- 정부는 이달 초 코로나19 사태로 손해가 가장 많은 업계를 조사했는데, 전체 기업 중 약 15~17% 가량이 부도가 우려되는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드러남
- 특히 중소기업들 50% 이상이 지난해 대비 매출이익이 급감하며, 전체 중소기업 26%가 종업원 해고 또는 무급휴가를 실시함

■ 전문가들은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3%대로 역성장하고, 달러 대비 루블화 환율 또한 85~90루블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함

- 전문가들은 올해 성장률은 마이너스 2.3~2.5%를 찍고, 내년 또한 0.5~0.8%대의 역성장 기록이라는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내놓음
- 그러면서 2022년에 들어서야 0.6%~1%의 플러스 성장으로 재진입할 수 있다고 전망함
-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러시아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5.5% 마이너스로 러시아 자체 평가보다 더 비관적으로 예측함
- 이는 석유전쟁과 코로나19 쇼크라는 악재가 설상가상으로 작용하며 글로벌 시장은 러시아 경제를 더 심각하게 진단하는 것으로 해석됨

■ 반면 러시아 정부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지만, 3분기부터는 다시 플러스로 복귀하고 환율도 내년부터 반등 주장함

- 앞서 러시아 중앙은행은 1~2분기 GDP는 마이너스를 전망한다면서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기간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조심스럽게 논평함
- 엘비라 나비올리나 중앙은행 총재는 1~2분기에는 마이너스가 예상되나 3분기부터는 플러스로 복귀하며 경기침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한편 안드레이 클레파치 러시아국립개발공사 부회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2021년 세계경제는 4%대 성장을 예상 가운데, 러시아 GDP 성장률이 4.8% 성장을 전망함
- 또한 클레파치 부회장은 러시아는 경제위기 대응 비용이 GDP의 0.7~1.2% 인데 반해, 미국은 12.4%, 독일은 37%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함
- 안드레이 코스틴 VTB 은행장은 달러 대비 루블 환율이 은행 허용치 한도에서 15%를 초과했다며 아주 최악의 상황에도 80루블을 넘지는 못할 것이나, 내년 루블화 가치는 회복될 것이라고 말함

■ 1분기 기준 러시아 교역수지는 321억 루블 (약 535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31.7% 감소했고, 러시아 순자본유출 또한 170억 루블로 전년 동기 대비 29.2% 감소했음

- 러시아 내 중국 전문가에 따르면, 올해 러시아의 대중국 수출 이 약 100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러·일 교역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로 올해 1분기 교역규모는 약 4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작년 동기 54억 달러에 비해 약 1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 글로벌 공급사 간 석유 전쟁과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러시아 경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흘러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비관적 시나리오는 GDP는 -10.2%까지, 2021년 1분기에는 성장률이 14%까지 마이너스로 직행하고 2023년 2분기 들어서야 반등할 것임
- 낙관적인 시나리오 GDP 감소율은 3.8%에 수준으로 역신장하고,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 점진적으로 회복하면서 내년 2사분기에 이번 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함

■ 코로나 사태로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유통구조에 변화가 감지되는 가운데,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이 가파른 성장이 예상됨

- 기존 대형 하이퍼마켓 중심의 유통구조에서 소비자의 구매처가 온라인 채널로까지 빠르게 다각화 중임
- 업계에 따르면, 2018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198억 달러, 2023년 534억 달러까지 증가될 전망임

■ 이에 우리 기업은 '위기를 진출 원년의 '기회'로 활용하는 역발상이 필요함

- 코로나 충격으로 세계시장이 일정기간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러시아도 침체의 늪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임
- 실질소득 감소에 따라 소비자들은 보다 가격에 민감해지고, 공급자 또한 온라인 중심으로 자체 소매채널을 구축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점유해 나간다는 전략을 펼칠 것임
- 기존 진출업체들이 주춤하는 시점에 시장에서 손 바뀔 현상이 심화되는 틈새를 활용해 우리 기업들은 러시아 시장 진출 원년이라는 기회로 활용해야 함
-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사전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코로나19 이후 많은 변화가 생길 러시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함

전명수 객원교수, 국립블라디보스톡 경제서비스대학교
(070-5044-9502, msjeon1976@gmail.com)

참고자료

- a) <https://tass.ru/ekonomika/8182355> (검색일: 2020.04.20)
- b) <https://tass.ru/ekonomika/8212459> (검색일: 2020.04.20)
- c) <https://tass.ru/ekonomika/8214357> (검색일 : 2020.04.20)
- d) <https://tass.ru/ekonomika/8213563> (검색일: 2020.04.21)
- e) <https://tass.ru/ekonomika/8282567>(검색일: 2020.04.21)
- f) <https://tass.ru/ekonomika/8283505> (검색일: 2020.04.21)
- g)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23842&ref=A> (검색일: 2020.04.21)



표 1. 2019년 12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18/2019 증가율
극동지역	12.29 (+1.8%)	7.14 (+0.3%)	19.43	+1.3%
북극해	2.6 (+0.6%)	6.13 (-2.7%)	8.72	-1.5%
발트해	8.89(-0.9%)	11.74 (-1.1%)	20.64	-1.0%
아조프-흑해	9.17 (+2.0%)	14.82 (+0.0%)	23.98	+1.0%
카스피해	0.29 (+2.6%)	0.41 (-5.9%)	0.7	+3.2%
합계	33.23 (+1.0%)	40.24 (-0.6%)	73.47	+0.2%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올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베츠키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안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표 2. 2019년 12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단위: 천 톤)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식료품 및 원자재	357,912.1	1,057,232.2	357,092.0	1,044,068.2	820.1	13,164.0
광물 제품	1,649,738.8	436,559.5	1,629,082.1	125,919.7	20,656.7	310,639.8
연료 및 에너지 제품	1,387,385.4	112,461.3	1,387,267.8	112,417.7	117.5	43.6
생고무 및 화학 제품	4,673.7	752,268.8	3,850.7	744,393.9	823.0	7,874.9
가죽원료, 모피 제품	36.0	20,757.0	26.1	20,511.3	9.9	245.8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106,036.0	93,723.2	105,857.2	92,173.2	178.8	1,550.0
섬유, 섬유 제품 및 신발	200.8	311,379.5	110.5	305,473.2	90.3	5,906.3
금속 및 금속 제품	35,929.1	682,979.8	35,795.9	667,699.6	133.2	15,280.2
기계류	266,960.6	4,511,042.9	244,270.7	4,499,061.2	22,689.9	11,981.8
기타	467,687.5	516,245.3	440,888.8	513,774.7	26,798.7	2,470.6
합계	2,889,174.5	8,382,188.3	2,816,973.9	8,013,075.0	72,200.6	369,113.4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참고자료

a) <http://dvtu.customs.ru/statistic/2019-god/operativnaya-informacziya> (검색일: 2020.3.20)

표 3. 2019년 12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단위: 천 톤, 달러)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선어, 생물	3	362.5	4	442.2	3	362.5	4	442.2	-	-	-	-
냉동어	108,005	2,098,303.5	1,885	50,582.0	107,876	2,097,570.8	1,885	50,582.0	129	732.8	-	-
연어류	11,513	378,792.9	-	-	11,502	378,537.9	-	-	11	255.0	-	-
넙치	140	30,445.5	-	-	140	30,445.5	-	-	-	-	-	-
가자미	1,460	16,305.0	-	-	1,460	16,305.0	-	-	-	-	-	-
가자미류	1,766	35,332.3	-	-	1,766	35,332.3	-	-	-	-	-	-
청어	35,915	112,421.4	-	-	35,797	111,962.6	-	-	119	458.9	-	-
대구	3,037	197,401.6	-	-	3,037	197,401.6	-	-	-	-	-	-
명태	49,212	953,818.1	-	-	49,212	953,818.1	-	-	-	-	-	-
농어	75	2,136.9	-	-	75	2,136.9	-	-	-	-	-	-
간, 곤이 (어란)	836	263,159.2	-	-	836	263,159.2	-	-	-	-	-	-
지느러미, 머리, 꼬리 등 생선부산물	428	16,378.3	-	-	428	16,378.3	-	-	-	-	-	-
생선 필렛, 어육	593	154,691.5	83	4,364.5	587	154,676.8	83	4,364.5	7	14.8	-	-
건어, 훈제, 염장, 어분	112	1,781.7	123	5,994.3	112	1,781.7	123	5,994.3	-	-	-	-

갑각류	6,690	1,116,114.2	73	2,893.5	6,690	1,116,114.2	73	2,893.5	-	-	-	-
계류	5,530	1,017,648.9	-	-	5,530	1,017,648.9	-	-	-	-	-	-
조개류	4,014	121,517.0	-	-	4,014	121,517.0	-	-	-	-	-	-
가리비류	25	12,183.4	-	-	25	12,183.4	-	-	-	-	-	-
오징어류, 문어류	3,910	78,145.1	26	2,957.3	3,910	78,145.1	26	2,957.3	-	-	-	-
수산 무척추 동물	1,174	34,369.2	-	-	1,174	34,338.8	-	-	0	0	-	-
해삼류	253	7,416.7	-	-	253	7,386.3	-	-	0	0	-	-
성게류	919	26,385.4	-	-	919	26,385.4	-	-	-	-	-	-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을가 연구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thkim@kmi.re.kr/051-797-4783)

참고자료

a) <http://dvtu.customs.ru/statistic/2019-god/operativnaya-informacziya>(검색일: 2020.3.20)